

선어록 해제 46 한국선과 선어록 17

수선결사문(修禪結社文)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66>

그러고도 네가 부처이냐

학승이 물었다.
“화상께서는 어느 분으로부터 법을 이으셨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종심(從諗)이나라.”
問 和尚承嗣什麼人
師云 從諗

종심(從諗)은 조주 스님의 범명이다. 조주는 사람들이 불러주던 호이다. 공식적인 칭호는 조주종심(趙州從諗) 선사이다. 조주 스님은 남전 스님으로부터 ‘평상심이 도’라는 말에 깊게 깨달은 바가 있었다. 그리고 남전 스님 옆에서 57년까지 지냈다. 그래서 누구든지 조주 스님이 남전 스님의 법을 이었다는 것에 이의를 달지 않는다. 그러나 조주 스님은 자신의 스승을 남전 스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의 범명을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진정한 스승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스승이 있다고 해도 자신이 본래 부처가 아니었다면 절대 깨닫지 못한다. 이 법은 배워서 전달 받는 것이 아니다. 부처는 스스로 깨어난다. 따라서 스스로 부처임을 자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각하는 순간 만법이 갖추어진다. 스승은 법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제자가 정말 깨달았는가 그것을 점검해줄 뿐이다.

학승이 물었다.
“외부인이 만약 ‘조주는 어떤 실법을 하고 있는가?’ 하고 물으면 무엇이냐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소금은 귀하고 쌀은 천하다.”
問 外方忽有人問 趙州說什麼法 如何祇對
師云 鹽貴米賤

조주라는 지역은 바다에서 먼 지역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옛날 중국의 어떤 지역은 소금값이 쌀값보다 훨씬 비쌌다. 조주라는 곳도 역시 소금값이 더 비쌌던 모양이다.
선(禪)은 있는 것 그대로 말한다. 인위적이나 조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진실에 가깝기 때문이다. 물이 차면 차다고 말한다. 더우면 덥다고 말한다. 소금이 귀하면 귀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말한다. 물이 차서 나쁘다, 더워서 화난다, 소금이 비싸서 미치겠다, 꽃은 피는데 인생은 지고 있으니 슬프다 등 2단계적인 말은 하지 않는다.

조주 스님은 항상 평범한 말 속에서 뜻을 전했다. 조주 선사는 노선사가 될수록 길치레가 없고 진솔하게 말했다. 공연히 비유를 어렵게 하고 비비파서 말해 사람을 당혹하게 할 필요가 없었다. 그야말로 선(禪)의 진수만 보여준 것이다. <조주록>이 후대로 갈수록 남자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이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네가 부처인가?”

問 如何是佛
師云 你是佛麼

반문을 통한 가르침이다. 학인이 무엇이 부처냐고 묻는데 대해 부처에 대한 너절한 설명은 집어치우고 “너 자신이 부처이면서 그런 것이냐”고 묻고 있으니 그러고도 네가 부처이냐?” 하고 반문을 통해 스스로 누구인지 깨닫게 한 것이다.

선(禪)의 정수에 대해 알아보려면 <범화경>의 ‘탐자의 귀환’을 읽어볼 것도 없이 <육조단경>과 <임제록>을 잘 읽어보면 된다. 육조 스님과 임제 스님은 선불교를 일으킨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이들 선사의 핵심은 ‘마음이 부처’라는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있다. 부처는 이미 되어있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생각해보라. 부처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육조 스님이 어찌 하룻밤 설법을 듣고 깨달을 것이며, 임제 스님이 주장자 3번 맛중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도 ‘중생은 잠재적 부처’라는 식의 헛소리를 하고 있다면 그는 육조가문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가 있다. 만약 “너는 누구인가?”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 자기 속에서 ‘마음이 부처’라는 대답이 즉시 일어난다면 그대는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다. 다시 물었다. “너는 누구인가?”

무불선원 선원장

수선(修禪)의 방향제시

백파공선(白坡巨璇; 1767~1852)은 임제의 삼구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진행시켜 경전의 뜻과 이치를 따지는 것은 의리선이라 하고 이치와 의리의 격을 벗어난 것을 격외선이라 했다. 그리고 격외선을 여래선·조사선으로 분류해 전체적으로 의리선·여래선·조사선의 삼종선으로 분류했다.
<수선결사문>은 그와 같은 선리에 대한 참구의 실재를 실천하기 위해 결성한 것이다. 저술 장소는 1882년(56세) 정도 운문사였다. 그 이유는 제19장의 “깊은 산에 들어가 <수선결사문>을 엮어서 그것으로 자신도 돈오를 추구했고 남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설명한다”는 대목에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이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동기는 자신과 더불어 수행하는 자들에게 생사일대사(生死一大事)의 문제를 해결토록 하려는 데에 있었던 것이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론을 감승하는 것으로는 백파 자신이 마음을 깨칠 수가 없었다. 둘째 사교입선(捨教入禪)으로도 또한 번뇌를 완전히 그치지 못했다. 셋째 진정한 선지식을 참문 하고자 편참했지만 안목이 부족해 끝내 참문하지 못했다. 넷째 이로써 깊은 산에 들어가 <수선결사문>을 엮어서 그것으로 자신도 돈오를 추구했고 남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했다. 다섯째 동지와 더불어 수행해 깨침의 정인(正因)이 되기를 널리 권장했다.

이렇게 하여 수선의 방향을 제시하고 직접 수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엮었다.

<수선결사문>은 전체적으로 서문, 본문, 부록의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수선결사문서’에는 풍고거사(楓草居士) 술(述), 백파사문(白坡沙門) 과석(科釋)이라 기록돼 있다. 때문에 <수선결사문과석>이라는 명칭으로 기록돼 있다.

이 서문은 백파의 제자인 승화상인(勝和上人)이 백파의 법어를 모아서 풍고 거사에게 증명을 부탁했다.

풍고거사는 법어를 열람하고 직접 백파공선을 만나 문답을 한 연후에 서문을 붙였다. 그런데 그 서문에는 백파가 다시 과석을 붙였다. 또한 부록으로 법어 뒤에 규승(規繩)과 관련된 내용을 붙여서 1822년에 <수선결사문>이라는 제목으로 편찬해 유통시킨 것에 38년 뒤 1860년에 혜소(慧昭)의 발문을 추가해 천마산본으로 개판했다. 때문에 서문은 풍고 거사의 서술에 백파가 그와 관련된 내용을 풀이하는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서문을 쓴 풍고거사는 조선 정조 및 순조 때의 유학자이면서 최고 권력자였던 김조순(金祖淳)으로 밝혀져 있다. 이와 관련해 여기에서 본 <수선결사문>의 간행에 시주자로서 하옥거사 김좌근은 김조

순의 아들이기도 하다.
본문은 총 19장으로 구성돼 있다.

1. 진정한 안목을 갖추는 것이 참학의 요체이다.
2. 정변(正辨)과 정안(正眼)으로 정신(正信)을 발생시킨다.
3. 모든 방편 가운데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4. 간략하게 공안을 인용해 모범을 보인다.
5. 먼저 적적(寂寂)으로 번연심을 다스린다.
6. 바로 성성(惺惺)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참구한다.
7. 먼저 정좌(靜坐)를 하고 그것을 점차 일상의 모든 행위까지 적용한다.
8. 염불을 잘 분별해 궁극적으로 구심(修心)할 것을 권장한다.
9. 권·실을 대변해 간절하게 수선을 권장한다.
10. 세간의 무상을 꾸짖어 간절하게 명리를 책망한다.
11. 재리(財利) 및 법리(法利)를 성취토록 하고 그 공덕을 보여준다.
12. 선정의 힘이 없이는 율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13. 남자에게 진정한 행리(行履)를 제대로 보여준다.
14. 오직 인간세상만이 발심하고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5. 전세에 불신했던 원인에 대해 거듭 논한다.
16. 믿음을 지닌 자는 상근기임을 반증한다.
17. 이미 선정을 믿었으면 구경에 깨침을

보아야 한다. 18. 다양한 근기를 대변하여 출가의 진정한 도리를 드러낸다. 19. 백파 자신의 생각을 간략하게 서술하여 함께

수선하기를 권장한다.
그리고 본문에는 ‘사중규승(社中規繩)’을 붙여 두고 있는데 모두 일곱 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그 전체는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반야·바라밀의 육바라밀과 화합을 강조하는 보살도의 실천을 구현하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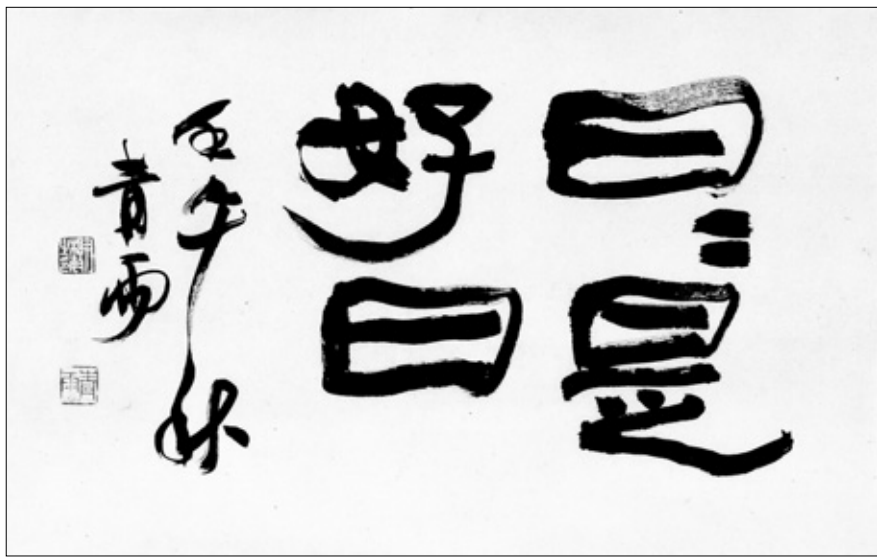
첫째는 돈오를 중시한다. 둘째는 대본지를 발명한다. 셋째는 지계에 충실한다. 넷째는 절차탁마를 한다. 다섯째는 정명(正命)을 실천한다. 여섯째는 도반을 배려한다. 일곱째는 규율을 어긴 자는 응분의 제재를 받는다.

[사중규승]에 이어서 백파의 제자 혜소가 1860년에 개판하면서 불인 발문이 수록돼 있다. 그 내용은 발문을 쓴 혜소상인이 사설해 놓은 불법의 차별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깨침을 향한 것임을 피력한다. 나아가서 널리 경론과 논소를 참고하고, <염승> <선요> <단경> <금강경> 총림의 다양한 기록물, 정려의 <산가귀감>, 대혜의 <정법안장> 등으로부터 발췌한 <수선결사문>의 훌륭한 점을 찬탄한다. 그리고 하옥거사 김좌근에게 시주를 부탁하고, 혜소 자신이 다시 교정을 더해 출간한 경위를 서술하고 있다. 기타 부록으로는 ‘식지 변설’, ‘태고암가입과’, ‘시악암거사법보요지’, ‘삼근염 불본’, ‘시백충신거사법어’ 등 5편이 수록돼 있다.

김호귀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운상민의 서화산책 14 日日是好日(일일시호일)

날마다 좋은 날



日日是好日(일일시호일)
운문문인(雲門文偃; 864~949) 선사가 어느 날 대중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15일 이전의 일은 그대들에게 묻지 않겠으나 15일 이후의 일은 한 구절씩 가져와서 일러보라.”
대중이 모두 말이 없자 스스로 대중을 대신해 말씀했다. “날마다 좋은 날이다.”

是: 이 시,
울을 시
好: 좋을 호

정임호일 우오일일 추 시



서예가·동아미술상 수상



김호귀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승기건강비법 신비의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굵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이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를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삼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오전 7시 20분 - MBC TV "교향이 좋다" (마가목효능)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병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여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공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년이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 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액을 섞었다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전화번호: 031)673-1285
참나선원 대진스님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강릉 인월사 담마선원 대념처경 특강 위빠사나 집중수행 안내

지혜와 자비를 개발하는 불교명상법인 위빠사나 집중수행과 대념처경 특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념처경은 위빠사나 수행의 근거가 되는 경전으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법을 전통적으로 바라는 수행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전입니다. 불교의 가르침과 수행을 통해 행복을 삶을 바라신다면 지금 이 수행에 동참해 보십시오.

일 정	지 도	인 원	대 상
2011년 6월 18일 - 6월 24일 (6박 7일)	우도다나 사야도 [통역: 일창스님]	20명 (선착순)	일반인

■ 수행장소 : 강원도 강릉시 경포 저동 6-2번지 인월사 담마선원 (황토방에 욕실과 화장실 완비)

■ 수행내용 : 대념처경 특강 및 좌선, 행선, 일상생활수행 (매일 대념처경 특강과 수행 점검을 위한 사야도의 면담이 있음)

■ 입제 및 회향 :
• 시작 날 - 6월 18일 오후 5시
• 끝나는 날 - 6월 24일 오전 12시

■ 참가비(대념처경 특강 및 수행비) : 30만원 (우체국 201780-01-001463 예금주: 담마선원)

■ 준비물 : 수행에 편한 복장, 필기도구, 세면도구는 선원에 비치됨

■ 문의 및 접수 : ☎ 담마선원 033)644-1686 email: dhamma53@hanmail.net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